

EAACI Congress 2016 을 다녀와서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호흡기알레르기분과

전임의 김민지

2016 년 EAACI (European Academy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가 는 2016 년 6 월 11 일부터 6 월 15 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임의를 시작하고 처음 참석하는 해외 학회인지라 설레는 마음으로, 가기 전에 많이 준비해서 배워오리라 계획했지만, 어느새 출국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정 상 금요일 출발이 어려워 헬싱키 공항을 경유하여 6 월 11 일 밤에 비엔나에 도착하였습니다.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로 도나우강을 따라 자리잡고 있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도시였습니다. 또한 비엔나는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의 관문 역할을 하며 과거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도시 전체가 품위있고 문화적 위엄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학회는 MESSE 라는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등록하는 곳에서부터 발표가 이루어지는 내부까지 행사장이 깔끔하고, 진행이 조직적이고 원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열리는 Plenary session 과 Learning lounges 는 그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생생한 발표를 들을 수



있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Plenary session 은 첫째는 큰 규모에 한 번 놀랐고, 자리가 없어서 서서 듣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에 두 번 놀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정적인 분위기를 타서인지 평소에는 어렵다는 생각에 관심이 적던 biology 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명한 교수님들의 짜임새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연달아 들으니 영어의 벽이 높았지만 조금이나마 개념을 잡을 수 있었고,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Pro & cons 시간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었지만 인상 깊었던 것은 food allergy 의 early introduction 에 관한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도 Pro & cons 으로 진행되었던 주제이기도 하였고, LEAP study 나 EAT study 를 통해서 early introduction 이 대세를 이루는 곳에서 반대 주장을 발표하시는 선생님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임상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영양적인 측면으로 nut 를 지속적으로 노출 시키는 것이 맞는가, 또한 경구 면역치료를 시행하면서 위험도를 얼마만큼 감당할 것인가 등을 근거로 발표하셨고, 발표 전에는 Cons 비율이 5% 정도였는데 발표 후에 50% 정도로 역전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표 내용도 뛰어났지만,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높이면서 설득력있는 프리젠테이션 방법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어떤 외국의 큰 연구가 나왔을 때 그것이 무조건 맞다고 수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연구에 더 나은 방법을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Poster discussion session 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본인들의 연구를 집약적으로 발표하고, 소규모로 진행되어서인지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질의, 응답하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 이지영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한국 연구자들이 발표하시고,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흥미를 가지며 의견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학회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책에서 얻는 것과는 또 다르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session 중에서는 최근 저희 센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중인 oral immunotherapy 에 관해서 개괄적인 내용부터 특히 tree nut 에 관련한 practical 한 immunotherapy 가 소개되었던 강의를 인상 깊었습니다.

6 월 14 일에는 아시아식당에서 열린 Korean night 에 참석하여 한국에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내 학회에서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일이 인사드리기 어려웠는데, 해외 학회라 우리나라 전국의 다양한 과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름진 음식 위주로 먹다가 오랜만에 먹는 라면도 정말 꿀맛이었고, 교수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귀한

경험담을 듣고 친분도 쌓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소아 호흡기알레르기 분과를 시작한지 이제 2 년째인 전임의로서 이제 막 눈을 뜨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지금의 시점에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과, 학회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